

물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수질관리 (수변완충녹지(Buffer zone) 관리를 중심으로)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변의 완충녹지(Buffer zone)는 물을 저장하고, 물에서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며 수중과 육상의 식물과 동물을 위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많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수질개선과 수량확보 및 생태계유지를 위한 수변완충녹지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여 많은 수변의 완충녹지가 훼손되어 왔다. 다행히 1998년 11월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에서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제도가 도입되어 수변의 완충녹지의 보전과 훼손된 완충녹지의 복원의 길이 열렸다. 수변완충녹지는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 친수환경 제공, 수질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안전성 제고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물환경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수변완충녹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전의 수문 조건에 최대한 적합, 비점오염원 저감기능 강화, 하천흐름의 안정화, 하천 서식지와 식생 회복, 하상구조의 안정화 등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변완충녹지 적정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자원의 현재 혹은 잠재적 가치, 유역과 완충지 특징, 인접 토지이용의 강도, 완충지의 수질 및 서식처에 끼치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도 오염원 이동억제와 오염물질 저감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과 여가공간 및 심미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토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